

‘MIFA(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 주관사 佛 CITIA의 전시 디렉터 인터뷰

프랑스 안시에 소재한 CITIA는 세계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 하나인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MIFA(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의 주관사. CITIA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안시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해당 지역 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한국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행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공동관을 운영하여 참여기업이 더 늘어났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CITIA는 2024년 행사에서는 비디오게임 분야를 새로 추가할 예정이며, 한국 게임 업체들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CITIA의 전시 및 문화사업 디렉터 Raphael CAHUZAC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시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CITIA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알아보고, 행사 참여 및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봄

🕒 기관 소개

Q. CITIA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CITIA(cite de l'image en mouvement, 영문 City of Moving Images)는 프랑스 안시(ANNECY) 市의 주도하에 2006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사업으로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하 안시 페스티벌)’의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둘째, MIFA(Market du International Film d'Animation,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 마켓) 등의 행사를 통해 프랑스 내의 여러 창작 기업과 기관, 그리고 해외 업체들과의 프로젝트 및 상업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셋째, 교육사업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저는 Raphael CAHUZAC이며, CITIA에서 전시 및 문화사업 디렉터로 재직 중인데요, 주요 사업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특징과 지원

Q. 행사가 개최되는 프랑스 안시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산업은 안시를 중심으로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안시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시 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 업체, 애니메이션 제작 기

자재 대여 및 판매업체, 플랫폼 업체,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필름 제작 시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시 지역에는 소규모 회사와 대기업이 혼재해 있기에 필름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공동제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보도기관과 방송사 기자들도 안시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안시 지역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토털 솔루션을 가진, 애니메이션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Q. B2B 회의나 매칭에 관련해서, CITIA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 행사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참여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활동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참여 업체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등, 자연스러운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CITIA는 이런 업계 종사자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교류하고 사업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잘 준비하여 행사에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Q. 2024년 행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시 페스티벌은 해마다 국가 테마가 있습니다. 2024년 행사는 포르투갈을 주제로 기획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댄스팀도 초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행사에서는 비디오게임 분야가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행사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디오게임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비디오게임 업체들이 참석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2000년대 초 한국기업이 처음 참여할 때와 비교해 보면 이제 참여 규모나 협력 관계 측면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행사를 활용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도하에 한국 공동관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Q. 참여 업체들이 숙박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업체들이 숙박과 교통 체제에 대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 숙소 및 관련 시설 이용을 사전에 여유 있게 예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하여 MIFA 관련 지원 정책 중에 행사 기간 특별 할인도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에 참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들을 50%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프랑스 정부나 관련 기관의 콘텐츠 분야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랑스 정부의 콘텐츠 분야 지원은 CNC(Centre national du cinema et l'audiovisuel, 국립영화영상센터)의 금융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프랑스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랑스 업체들에 대하여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지원 대상에 국제 공동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업체들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해외 업체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리즈물이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정도는 프로젝트의 제작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프랑스에서 지원은 여러 기관의 지원금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한국업체들의 행사 참여 현황 및 참여 희망 기업에의 조언

Q. 한국 애니메이션 업체들의 행사 참여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안시 페스티벌과 MIFA에 참여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도하에 한국관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 공동관과 단독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기업 비율은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한다고 느꼈는데, 2023년 행사에서도 한국기업이 선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행사에서도 캐나다 국가기관과 한국업체들이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필름이나 작품 제작을 위한 교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콘텐츠는 매우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기업이 프랑스 기업과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제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한국만의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최종 시청자인 프랑스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업체와 논의하거나, 글로벌 정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공동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들이 생기지만, 이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시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만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이곳의 업체들과 함께 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실제로 안시 지역에서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각테일파티 등을 활용하여 친분을 쌓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콘

텐츠진흥원이 주도하여 한국기업과 안시 지역의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4년 행사는 1월과 2월에 참가 신청과 예약이 이루어지고 6월에 행사가 진행되기에 미리 행사 참여와 숙소 등을 예약하고 다른 업체나 투자자들과의 교류 및 논의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한국기업들을 접해본 경험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늘 급하게 일을 진행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함께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도하는 한국관에 여러 기업과 함께 참여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직접 독립 부스로 참여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는 2023년 12월 프랑스 안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